

도쿄도 유비쿼터스 계획 · 긴자

정보신청기관 :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1. 일본의 유비쿼터스 정책 동향

가. 정부 · 총무성의 IT정책 변천

일본은 2001년에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IT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IT전략본부)가 내각에 설치되었다. 이것이 IT 국가전략의 기점으로 2005년까지 세계최첨단의 IT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e-Japan 전략」이 시작되고, 이 전략의 광대역인프라정비목표(고속인터넷 접속망에 3,000만 세대,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에 1,000만 세대가 상시접속가능하게 되는 환경정비)는 조기달성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2003년에 「e-Japan II 전략」이 책정되어 광대역의 더 많은 확충을 진행하고 IT의 이·활

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 가운데 총무성이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협력을 얻어 책정한 것이 「u-Japan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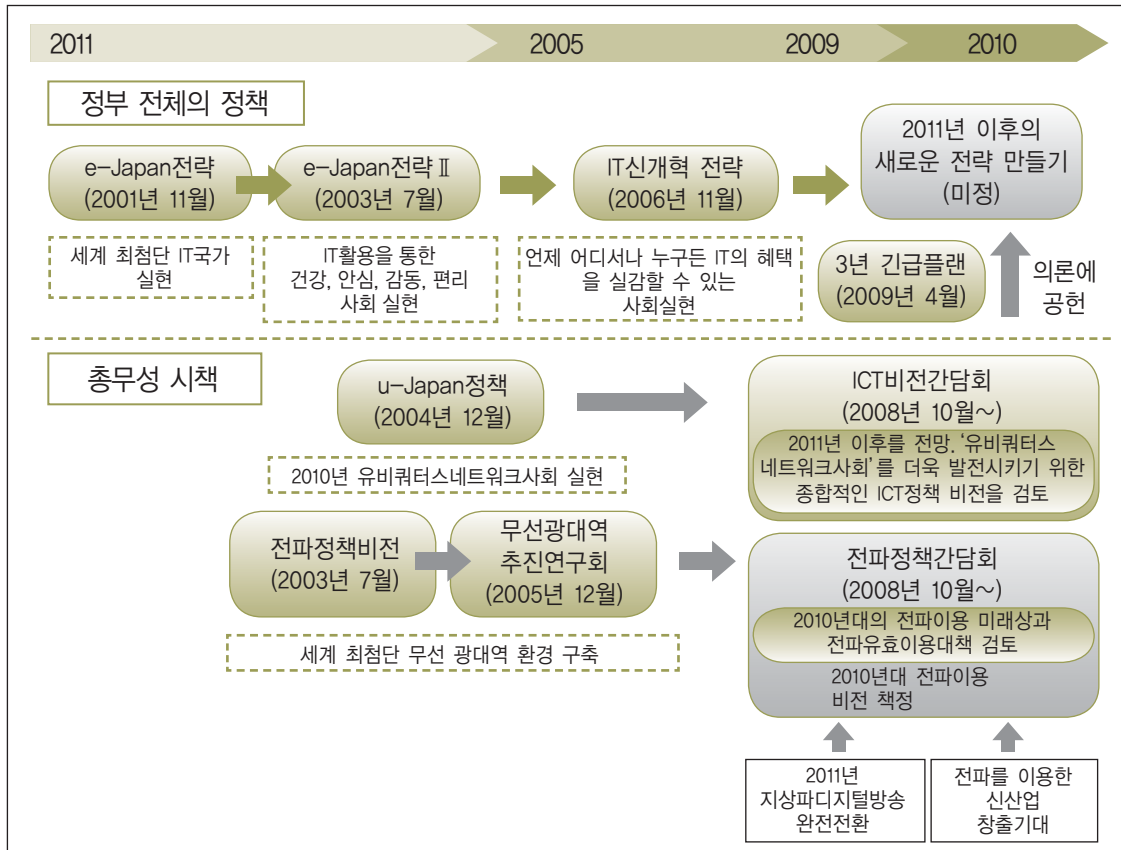
「u-Japan 정책」은 2010년을 목표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가 IC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인프라정비와 이·활용 촉진을 축으로 3개의 방향에서 전개하였다. 첫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정비, 둘째, ICT 이·활용의 고도화, 셋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인프라 정비가 ICT 이·활용의 고도화에 적확하게 연결되도록 안심·안전한 환경정비를 만들어 나갔다.

현재는 2015년까지의 목표를 정한 새로운 국가IT 전략인 「DigITal Japan」¹⁾의 책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DigITal Japan」에서는 디지털 에코사회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1) 프랑스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발전계획 「DigITal France」를 모델로 하고 있음.

<그림 1> 정부 및 총무성의 IT 정책의 흐름



나. 국가/도시의 유비쿼터스 사회 주요 정책

1) 내각부

내각부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제휴시책군의 하나로써, 고도 유비쿼터스 오픈통합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 전자태그기술 등의 전개 -」를 추진하고 있다.

2) 총무성

2008년부터 「유비쿼터스 플랫폼 기술 연구개발」을 개시하고 있다.

특정 장소를 공간코드로 활용하여 실내외에 구애 없이 이용자의 위치 및 장소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 가능케 하는 유비쿼터스 공간정보기반기술의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ICT 개혁촉진 프로그램(2007년 4월)」 및 「ICT 국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2007년 5월)」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특구」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e-Japan II 전략」 및 「u-Japan 정책」을 바탕으로 ICT에 의한 선행적 사회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텔레워크를 보급·촉진하기 위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맞춤형 법제정보

3)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 정보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량의 정보 중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해석하는 공통기술(지적정보접속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한 「정보대향해프로젝트」를 전개하고, 「e공간」과 「유니크 ID」라는 2개의 테마로 개발과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e 공간」에서는 ucode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공간에 관한 정보를 공통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바일 환경에 대응한 “지금만, 여기만, 당신만”의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e공간서비스 「PURATTO Plat」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니크 ID」에서는 거래 및 결제 등의 데이터를 디지털 영수서로써 IC카드 및 서버에 축적하고, 경비정산 등에 위조 및 이중청구의 방지 등 생산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국토교통성·도쿄도

국토교통성은 2000년부터 고령자 및 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동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실용화를 목표로 「자율이동지원 프로젝트」를 전개, 각지에서 민간사업자의 참가를 얻어 실증실험을 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서비스 제공시 민간참가를 예상하고, 관과 민이 각각의 역할을 부담하여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다(다카야마, 도요타, 고베 등).

이 「자율이동지원 프로젝트」와 제휴하여 도쿄도는 「도쿄유비쿼터스계획」이라는 명칭으로 IC태그를 시작으로 한 정보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실험을 우에노, 아사쿠사, 긴자, 신주꾸에서 실시하고 있다.

5) 기타

문부과학성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의 관련시책으로 2004년부터 21세기 COE 프로그램 「차세대 유비쿼터스 정보사회기반의 형성」을 도쿄대학대학원정보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보학을 핵으로 한 기술 및 사회, 경제에 걸친 폭넓은 학문기반의 성립이 목적이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도의 기간에 「시큐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플랫폼」의 연구개발을 실시,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의 시큐리티기술의 개발을 실시하였다.

농림수산성에서는 「식품산업경쟁력강화대책사업·식품유통효율화대책사업」에서 전자태그 등의 신기술 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보급에 따른 식품유통의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앞서 말한 실증실험에 함께 혹은 별도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연구기관은 YRP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연구소, 도쿄대학대학원정보학원, 요코하마국립대학 쿠라미츠연구소, 류코쿠대학, NIT 사이버솔루션 연구소 등이 있다.

2.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 · 긴자」

가.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 · 긴자」 배경 및 개요

도쿄도에서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최첨단의 ICT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공간 정보 시스템을 관광 · 상업적 관점에서 활용하고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세계에 알린다”라는 방침하에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도는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 추진에 앞서 “도쿄도 IC 태그 실증실험실행 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쿄대학의 사카무라켄 교수를 위원장으로 도쿄도 도시정비국과 기타 관계국(도쿄도 건설국, 도쿄도 산업노동국 등) 및 국토교통성의 “모빌리티 서포트 모델사업”²⁾과 제휴하여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실증실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은 외국인 및 어린이를 포함한 누구나가 불안감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 만들기”를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매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긴자4초메 교차점 주변 및 도청사 - 서신주꾸 간에 설치된 기기를 활용한 공모실험을 모집 · 실시하고 있다.



2) 국토교통성에서는 신체상황, 연령, 언어에 상관없이 이동 등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손에 넣을 수 있는 환경구축을 목표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기술검토를 실시, 2009년도부터 “모빌리티서포트모델사업”을 실시, 기존의 성과를 지역에 보급 전개하고 있음.

2005년에는 「도쿄유비쿼터스계획 · 우에노 거리 내비게이션 실험」으로, 온시우에노 동물원을 중심으로 한 구역에서 동물에 대한 해설 및 루트안내 등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호평을 얻은 현재에는 그 범위를 동물원 전체로 확대하여 유비쿼터스 동물정보서비스로써 무료로 연중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는 일본을 대표하는 변화가 · 긴자를 무대로 긴자에서의 유비쿼터스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도쿄유비쿼터스 · 긴자」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실험범위는 긴자4초메 교차점을 중심으로 한 긴자거리, 하루미 거리의 지상 및 지하이다. 전용 휴대정보단말기(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터: UC)를 대여하여 목적지의 이동안내, 시설 · 점포정보, 관광정보, 긴자의 역사 등의 제공을 실시하였다.

2007년도부터는 긴자의 실험필드를 민간의 기술시행의 장으로 제공하고,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하여 민간참가실험을 도쿄도의 기타 추진들과 함께 실시하였다.

2008년도는 도청 전망실에서 긴자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 관광안내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에서는 연말연시 등을 제외하고, 무료로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실험의 큰 추진실적 중 하나로 도청전망관광안내시스템을 정비한 서신주꾸 범위와 긴자 범위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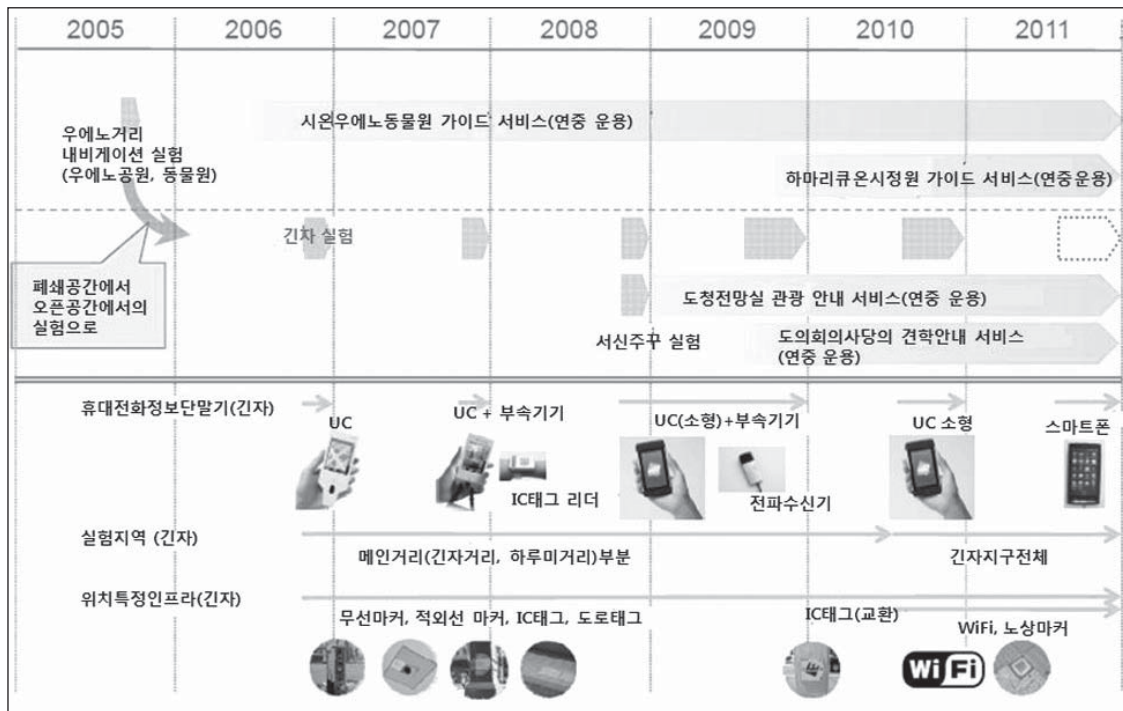
맞춤형 법제정보

하는 면적인 공간에서 유비쿼터스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검증할 수 있었다. 서신주꾸범위(도청사)~지하철 서신주꾸역~지하철긴자역~긴자범위를 추천, 유도 루트로 하였다.

2009년도에는 기존의 공모모니터가 아닌 긴자와 신주꾸를 방문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반년간에 걸쳐 서비스 실용화를 위한 검증을 하였다. 긴자의 호텔 5군데 및 도청주변의 호텔 3군데에서 숙박객에게 UC를 대여하고 집포정보,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2010년도에는 위치특정기술인 WiFi측위 기술을 활용하여 긴자지구 전체의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긴자거리, 하루미거리 이외의 지역에서도 길안내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포털사이트 “KOKOSIRU”와 제휴하여 약 45점포(2009년도 67점포)의 참가를 얻어 UC이용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선마커와 더불어 하루미거리의 인도에 삽입식 노상마커를 16개 추가설치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차점 등의 필요한 장소에서 제공하였다.

<그림 2>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 흐름도



나.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긴자」 실험 내용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긴자」 실시협회의는 유비쿼터스 ID³⁾기술의 실용화·시장화를 위해 긴자4초메 교차점 주변 및 도청사 서신주꾸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에 의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실험실시를 할 민간기업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기존에 설치된 기기를 사용하여 실험실에서는 불가능한 실환경의 실험 및 정보제공을 제공할 기회를 마련하고 실험에 관한 모든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응모는 사업실시 또는 제품제조·납입하는 데 필요한 권리 및 능력을 가진 “기업”, “기업단체” 및 “기관”으로 한정한다. 공모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실험계획의 조건

실험계획은 1) 유비쿼터스 ID기술의 보급·실용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2) 비즈니스모델의 성립에 도움이 되는 것(예: 기존기기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의 제안 등)을 조건으로 한다.

2) 현장 조건(2011년도 4월 기준)

가) 긴자지역(지상)

2011년 4월 기준으로 긴자거리 및 하루미 거리 서신주꾸 주변에 무선마커 107곳, 적외선 마커(지하), IC 태그가 부착된 시각장애인유도용블록 253곳, IC태그 플레이트 110곳, 노상마커 16개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긴자4초메 교차점에서 하루미거리에는 밀도 높게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다.



3) 장소 및 사물에 고유번호(고유 ID)를 적용, 컴퓨터가 자동식별하는 것을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을 연결하는 기술.

맞춤형 법제정보

나) 긴자지역 지하

2011년 4월 기준으로 무선마커 74곳, 적외선 마커 257곳, IC 태그가 부착된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 58곳이 설치되어 있다.



[기기정비상황] 2011년 4월 1일 현재

무선마커 : 74곳
적외선 마커 : 257곳
IC태그부착 시각장애인유도용블록 : 58곳

다) 서신주쿠 지역(지상 및 지하)

2011년 4월 기준으로 지상에 무선마커 22곳, 지하에 무선마커 17곳이 설치되어 있다.



[기기정비상황] 도청사 몇지역내 제외

○ 지상
무선마커 : 22곳

○ 지하
무선마커 : 17곳 ※

※ 신주쿠 지하의 무선마커 중 3곳은 마루노우치선 서신주쿠역 구내

실증실험은 위의 장소들에 기설치된 기기들을 사용하여 응모기업 또는 단체가 폐쇄된 공간에서의 실험이 아닌 오픈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 응모조건

실험계획의 조건에서 제시한 2가지의 조건과 함께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이 응모 가능하다.

응모조건
1. 도쿄유비쿼터스계획의 취지에 일치할 것
2. 2010년도까지 정비한 실증실험 범위를 활용할 것
3. 본 공모사업의 실증실험성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안내 및 관련 실적을 보유할 것
4. 상용화를 전제로 하여 실시할 것
5. 실험의 검증을 실시, 검증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할 것
6. 협의회가 실험내용 및 실험성적을 공표하는 것에 동의할 것
7. 취재 및 시찰 등이 있는 경우에 협력할 것
8. 실험성과와 함께 유비쿼터스 ID 및 장소정보시스템의 기술에 관한 표준규격이 정해진 경우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포함되는 실험참가자의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해서 일절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무조건으로 허락 또는 합리적인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허락할 것
9. 협의회가 실시하는 다른 실험과의 조정에 응할 것
10. 실험의 실시에 의해 금전적인 이익(순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협의회에 수지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순이익상당을 기기의 유지관리비로 환원할 것
11. 실험의 실시에 따라 협의회로부터 기기의 유지관리(점검 등)를 의뢰받은 경우는 응할 것

라. 2011년도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 실증 실험 -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증실험」

2011년도에는 12월 13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길자의 거리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는

실험을 개시하였다. 본 실험은 내년도 3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실험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특정 사이트에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통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체험이 가능하다. 둘째,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험실시범위 내에서 걸으면 스마트폰이 자동적으로 현재 있는 장소의 u-code를 식별하는 것으로 길자의 점포 및 명소, 이벤트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불만한 곳을 정리한 투어가이드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繁体字, 简体字) 및 한국어 등 4언어 5종류가 가능하다.

2011년도 실험은 길자지구 내에서 쇼와거리의 동쪽도 대상범위에 포함이 되며, 올해의 특징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다양한 기술을 통합한 장소정보 서비스

GPS, WiFi, 액티브태그, IC태그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하여 지금 있는 장소를 식별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대응 리더(음독장치) 내장의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의 전개가 예상되는 국제기준 NFC(Near Field Communication)규격의 IC태그를 인프라로 조기 정비하였다. 올해의 실증실험에서는 범용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액티브태그 및 IC태그 등을

맞춤형 법제정보

읽을 수 있는 휴대정보단말기를 대여하는 실험도 새해부터 예정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서 장소를 식별하고 그 장소에 맞는 정보를 표시하는 AR(Augmented Reality: 확장현실)형 서비스도 향후 도입할 예정이다.

2) 긴자만의 풍부한 정보를 제공

긴자지구의 음식점, 쇼핑센터, 이벤트 등의 정보를 시작으로 「긴자의 것」 등 특정 테마에 관한 몇 개의 “투어” 및 긴자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라도 알 수 없는 정보가 꼭 찬,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긴자를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음성가이드」 등 긴자 4초메 교차점을 중심으로 긴자에 관한 매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쇼와거리의 동쪽도 대상범위로 확대, 흥미가 있는 키워드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그에 관련된 점포 등의 주변을 지나면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

3) 범용 공통 인프라

특정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고, 또한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범용 공통 인프라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실험에서 8사의 민간기업의 참가하에 실용을 목표로 각종 서비스 실험을 실시한다.

3. 오사카 도시재생 프로그램 및 IT 비즈니스 모델지구 추진계획

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요

2001년 5월 8일, 「환경, 방재, 국제화 등의 관점에서 도시의 재생을 목표로 하는 21세기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추진 및 토지의 유효이용 등 도시의 재생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본부가 내각에 설치되었다. 그 후 도시재생본부에서의 1~3차 프로젝트검토를 거쳐, 2002년 2월 8일에 내각회의 결정, 3월 29일의 참원본회의에서 가결·성립,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국가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국제화의 진전 등에 대응하고, 도시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도시재생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함과 동시에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긴급하게 정비해야 할 지역의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제도의 창설,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등의 도시계획의 특별조치 창설 및 재생도시긴급정비협의회의 설치 등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은 민간주도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을 지정하고 용적률 등의 건축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실상의 특구를 설정하는 제도로, 구체적으로는 중후장대 산업용지 등 대규모 토지이용전환이 전망되는 지역, 역전 교통결절점 등 생활·교류지역, 방재상 위험한 밀집시가지에서 종합적 재개발이 전망되는 지역 등이 있다.

정부의 도시재생본부는 2002년 7월에 제1차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도쿄, 오사카, 나고

야도시권의 17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진행하고 5년간 5조엔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다.

나. 「오사카 도시재생 프로그램」 배경 및 개요

도시재생은 2001년 5월, 국가의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되어 “도시재생”이 긴급경제대책의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중요과제 중 하나가 되어 도쿄권, 오사카권 등 대도시권을 “풍요롭고 쾌적한, 혹은 경제력 넘치는 도시로 한다”를 메인테마로 정하고, 이후 2002년 4월에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공포, 동년 7월에는 정령이 시행되고, 오사카에서는 4개의 지역이 지정되었다. 그 이후, 2002년 7월에는 지역의 규제개혁을 목적으로 국가의 「구조개혁 특구본부」가 발족되는 등 구조개혁을 각지역에서 진행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더욱이 2003년 10월에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역재생본부」가 설치되는 등 지역재생을 위해서도 대응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도시재생”이 시작된 당시의 오사카 경제는 최악의 상태였다. 2001년 4월의 킨키지역의 완전 실업률은 6.6%로, 전국수준(4.8%)을 크게 웃돌았고 킨키지역의 도산건수도 2001년 4월에 월 300건을 19개월 연속으로 돌파, 전년동기대비 9.2% 상승, 전국(0.8%)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서경제의 정체요인으로는 ① 중

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점, ② 철강, 섬유, 가전 등이 관서경제를 견인하였었지만, 해외에서의 생산진행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 가속, ③ 본사기능의 도쿄이전, 이른바 「도쿄시프트」의 가속, ④ 소비불황에 의한 도소매업의 판매감소 등이 있다. 또한 금융재편에 의한 점포의 통폐합 등에 의한 오피스수요는 떨어지고, 오사카의 메인거리인 상도오사카(商都大阪)를 대표하는 비즈니스거리인 미도스지의 공빌딩 및 공실이 많았다. 따라서, 오사카의 도시재생 대응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서경제의 복원을 건 대응으로 중요시되고 있었고, 경제단체도 오사카 경제의 활성화의 기폭제로써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도시재생의 대응이 필요하였다.

오사카시의 「도시재생」은 국가의 「도시재생본부」의 설치 이후, 도시계획담당부문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2002년 5월에는 오사카부, 오사카시, 관서경제연합회, 오사카상공회의소의 국가에 공동제안이 이루어졌다. 2002년 7월에는 「오사카시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되어 「오사카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과 『구조개혁특구』의 활용에 따른 규제완화의 상승효과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오사카시의 이미지 향상으로 연결되는 PR, 분야별 대응 프로모션을 전개해 나간다」를 위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관계되는 7개 국으로 구성되는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되어 도시재생 대응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월에는 오사카 시내에서 4지역이 「도

맞춤형 법제정보

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 특례와 금융지원을 인정하게 되었다. 특히, 오사카시는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과 「구조개혁특구」의 상승효과를 노리기 위해 「신산업창조특구」로 체계화하고, 도시재생본부에서 몰두하였다. 「구조개혁특구」는 2002년 8월에 19개의 규제완화항목을 국가에 제안하는 것을 시작으로 규제완화항목의 추가제안을 실시하였다. 2003년 2월에는 오사카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효과적인 시책·사업과 시 스스로의 규제완화의 집중적인 실시와 더불어 민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과 『구조개혁특구』에서의 규제완화의 활용 등에 의한 상승효과를 목표로 2003년부터 3년간 몰두하는 주요 시책·사업과 규제완화를 나타냄과 동시에 프로모션강화책을 나타낸 「오사카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책정하였다.

1) 「오사카시 도시재생 프로그램」 주요 내용

「오사카시 도시재생 프로그램」은 “지적 비즈니스 창조기능의 강화”, “변화·문화집객기능의 향상”, “매력 넘치는 거리만들기의 추진”이라는 3가지 중점 프로그램을 정하였다.

“지적 비즈니스 창조기능의 강화”에서는 로봇테크놀러지, 건강·예방의료, IT의 3분야를 중점분야로 하고, 산학관 제휴에 의한 산업의 진흥, 대학·연구기관의 입지촉진, 인큐베이션

기능의 충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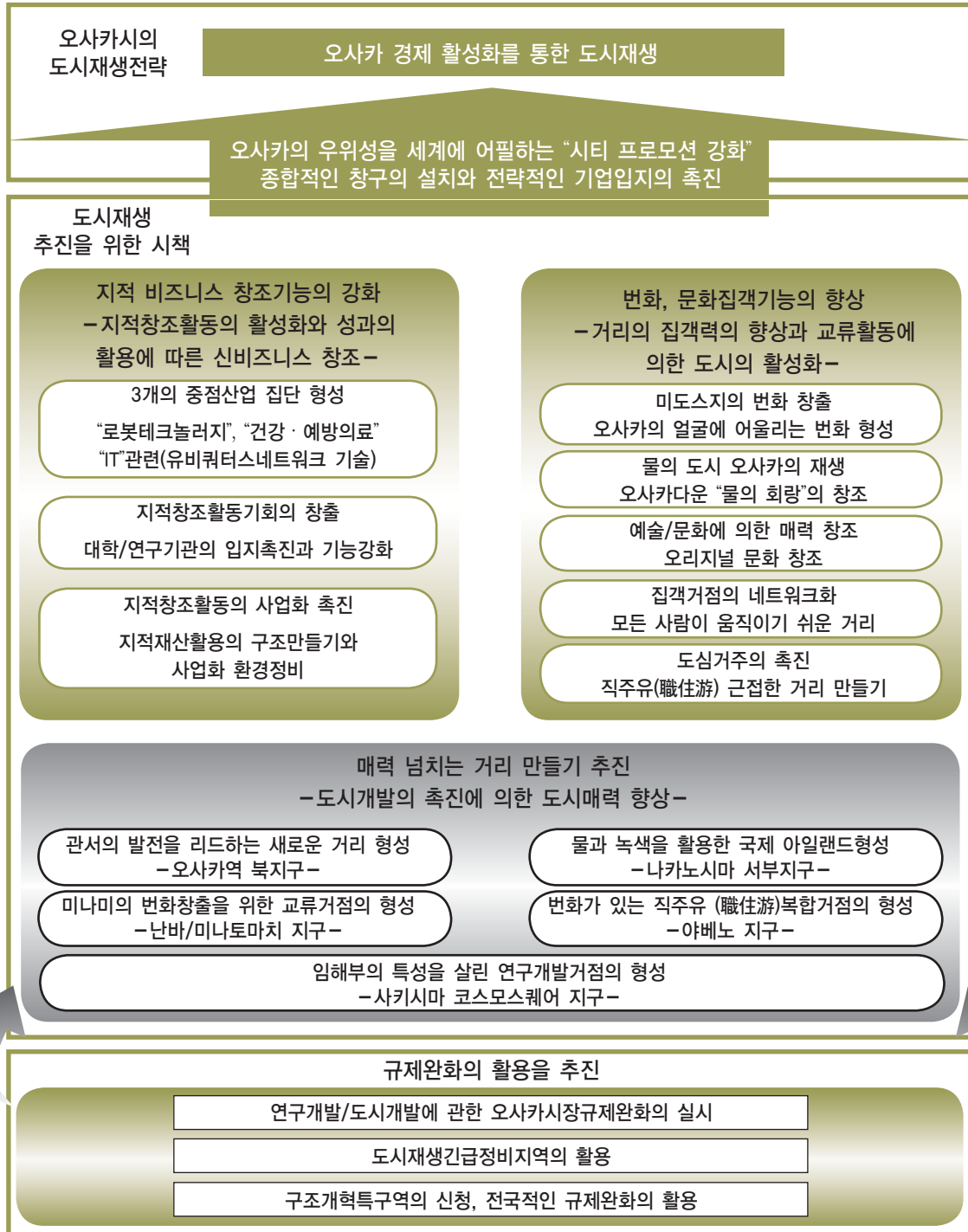
“변화·문화집객기능의 강화”에서는 미도시지의 활성화 창출, 물의 도시 오사카의 재상, 예술·문화에 의한 매력 창출, 집객거점의 네트워크화, 도심거주의 촉진을 주축으로 하여 집객력의 향상과 교류생활에 의한 도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각종 시책이 있다.

“매력 넘치는 거리만들기의 추진”에서는 오사카역북부지구, 나카노시마 서부지구, 사키시마코스모스퀘어지구 등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내 5개의 중요거점의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개발을 관민이 협동하여 집중실시하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규제완화의 활용과 추진」에서는 “시 스스로의 규제완화의 추진과 국가의 규제완화의 활용을 도모한다”로 하고 있다.

「오사카시 도시재생프로그램」 책정 후의 대응으로는 「구조개혁특구」의 대응으로 오사카 임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제교역특구」의 시책과 주식회사의 학교운용참가와 유학생의 재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축으로 한 「비즈니스인재육성특구」가 설정됨과 동시에 「도시재생프로젝트」로써 「오사카권의 생활지원 로봇 산업 거점의 형성」이 결정되었다.

그 밖에 「도시재생중점산업입지촉진조성제도」 및 「사키시마 코스모스퀘어 지구입지촉진 조성제도」가 시작됨과 동시에 프로모션사업을 시작으로 각각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림 3> 오사카 도시재생 프로그램



맞춤형 법제정보

다. 「IT 비즈니스 모델지구 추진계획」 배경 및 개요

오사카시에서는 IT관련 산업의 집적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총무성의 「IT 비즈니스모델지구 구상」⁴⁾의 모집에 「신산업창조 IT비즈니스모델지구 추진계획」을 책정하여 응모하고, 2003년 4월 4일자로 지구지정(2003~2005년)되었다. 이 지정에 따라 오사카시에서는 도시기능 및 산업의 집적한 도시부와 연구개발기능의 집적이 전망되는 임해부의 제휴를 중심으로 IT 비즈니스와 기존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IT 비즈니스의 창조를 촉진하기 위해 시책·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오사카시 도시재생 프로그램」(2003년 3월)에서도 새로운 오사카 경제를 담당하는 리딩산업으로 「IT 관련(유비쿼터스네트워크기술)」, 「로봇테크놀러지」를 제시하고 시내에 집적하는 IT 산업군을 강화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군의 형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총무성 「IT비즈니스모델지구 구상」의 지구지정을 통해 도시재생의 추진의 일환을 담당하였다.

총무성의 「IT 비즈니스모델지구 구상」은 2002년 6월에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

한 기본방침 2002”에서 본 구상을 추진하는 것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여 2002년도부터 하드/소프트의 시책의 집중전개를 통해 매력적인 IT 비즈니스환경의 선행적 실시(IT 비즈니스모델지구 구상)를 통해 IT산업집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주요 지원내용은 지역의 정보통신기반 정비, 어플리케이션 개발 촉진을 위한 선진기술형 연구개발조성제도 채택, 정보통신인재 연수사업지원제도를 채택하고 조성한도액을 1,000엔으로 하였다.

총무성의 「IT 비즈니스모델지구 구상」은 2005년 말로 종료가 되었으며, 2003~2005년의 3년간의 시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1) 「IT 비즈니스 모델지구 추진계획」의 실시 내용

가) 광섬유 수용공간의 개방 및 정보개시

오사카시가 보유하는 지하철 터널, 하수도관거, 전선공동구의 예비관 등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광섬유를 부설함에 있어, 그 공용수용공간을 개방하고 이용가능한 관로 정보를 오픈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광섬유를 수용하는 관로 등을 새롭게 구축하는 동안 도로굴삭공사 등에 관한 규제완화를 실시하였다.



4) IT 비즈니스의 진흥에 적극적인 지방공공단체를 지정하고, IT비즈니스에 있어서의 매력적인 환경을 선행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통해 IT비즈니스의 집적을 도모하고, IT비즈니스의 지역전개모델 구축 및 해당 모델의 타지역으로의 전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구상.

<표1> 공공수용공간개방에 관한 실적 (2005년 9월 말)

공공수용공간의 종류	개방연장(km)	점용연장(km)
지하철 터널	126	256,3
하수도관거	4,830	0
전선공동구	115	4,1
합계	5,071	260,4

나) 오사카시 각 시설의 공중무선LAN 서비스의 장소제공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고도한 정보통신네트워크의 형성을 촉진하고, 시민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오사카시 행정재산 및 오사카시 교통국사업용 부동산으로 무선 LAN 서비스 용도로 제공하는 해당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하였다.

2004년 12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무선 LAN 서비스의 오사카시 행정재산 및 오사카교통국사업용 부동산의 사용허가의 수속에 관한 요강」을 책정, 그 요강에서 무선 스팟구성설비에 대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공용가능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다) 코스모스퀘어지구 연구개발거점의 형성
기존의 첨단기술개발기능·국제교역기능·정보통신기능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유치, 연구개발형 기업의 입지촉진을 도모하여 산학제휴를 가능케하는 「IT 인프라를 정비한 연구개발거점의 형성」을 목표로 착수하였다.

IT 비즈니스에 관한 사업자의 실적으로는

NTT 도코모 관서가 코스모스퀘어지구에서 2004년 10월에 도코모오사카 남향빌딩을 건설하였고, 코스모스퀘어지구 내에 입지하는 주식회사 브로드게임에서 2003년도에 선진기술형 연구개발조성제도 19,500천엔(조성금 9,750천엔)을 활용하여 온라인게임 개발환경 및 3D아바타커뮤니케이션공간의 연구개발을 하였다.

대학/연구기관의 유치 실적은 오사카시 도시재생중점산업입지촉진조성제도·사키시마 코스모스퀘어지구입지촉진조성제도(2004년 4월 창설)를 통해 「모리노미야 의료대학」을 유치하였다.

라) 코스모스퀘어지구 고도정보통신기반의 정비
코스모스퀘어지구에서는 정보통신기반의 충실로 새로운 진출사업자, 거주자 및 내방자, 지구 내 종사자가 고도의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사키시마 코스모스퀘어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2005년 3월 책정) 중에서 코스모스퀘어 2기 지구에 대해 거리 만들기 교부금제도(계획기간 2005~2008년)을 활용하여 2005년부터 26,000천 엔(국가 교부금 10,400천 엔)을 통해 약 600m(전체계획

맞춤형 법제정보

연장 약 2.5km)의 정보관로정비를 하였다.

마) 창업촉진형 임대오피스 설정·입거지원사업

2003년, 2004년에 미도스지주변지구에서 벤처기업의 입거에 적합한 민간오피스를 오사카시가 설정하고 거기에 입거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보조를 하였다. 또한, 입거기업이 광섬유 인터넷접속 서비스에 가입할 때 초기공사비 보조도 실시하였다.

바) 소프트산업 프라자사업

(재)오사카시 도시형산업진흥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소프트산업프라자」에서 영상정보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5년은 공동연구개발지원시설(MADO)을 창설, 정보화지원시설(iMedio)로 통합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였다. 정보통신인재연수사업지원제도는 2003년도에는 10,000천 엔(보조금 5,000천 엔) 적용, 「차세대 무선환경의 휴대단말기 통신기술자 양성사업」을 실시, 2004년에 3,716천 엔(조성금 1,858천 엔)을 받아,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휴대전화 콘텐츠기술자 양성사업」을 실시하였다.

사) 오기마치 인큐베이션프라자사업

(재)오사카시 도시형산업진흥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인큐베이션시설 「메빅오기마치」에서 입거기업의 육성을 지원하였다.

- 시설제공사업 부분에서 창업촉진오피스(임대부스 23실), 인큐베이션 오피스(임대실 25실)의 제공

- 인큐베이션 매니저에 의한 기업육성지원
- 입거하는 운용협력단체와 제휴하면서 지역에 축적되는 기업과의 교류촉진 및 인재육성, 정보발신 등의 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탄생시키는 기업상호의 협력관계 만들기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아) 오사카 산업창조관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거점으로 경영상담과 공적용자로 신사업 창출, 경영개혁의 추진, 창업 촉진까지 지원한다. 2003년에는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IT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별 IT상담회, IT기술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에는 「유비쿼터스 챌린지@ 산업창조관」이라는 이름으로 가두단말기와 교통 IC카드를 사용한 비즈니스아이디어모집을 하였다.

자) 차세대 로봇테크놀러지 산업창출사업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시야가 넓고 21세기의 기간산업으로 주목되는 로봇관련산업분야의 시장창출을 목표로 「로봇 래버러토리」를 개설, 산학제휴 컨소시엄의 프로젝트지원 및 실증실험의 기획·운용, RT 정보의 수·발신, 인재육성 등 로봇테크놀러지를 활용한 비즈니스 및 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응하였다.

차) 로보캡 2005 세계대회 관련 사업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 「로보캡」 2005 세계대회를 2005년 7월 13~17일에 개최, 로보캡 역사상 최대인 31개국 330팀 약 2,000명이 참가하고 내방자 수는 18만 명을 넘었다.

의 컨소시엄 형성을 지원하고 실험장소의 제공, 규제 완화, 유도·정비를 하였다. 컨소시엄 「오사카 유비쿼터스네트워크 보급촉진협의회」는 2005년도 말 시점에서 31단체가 참가하고 12건의 실증실험을 실시하였다.

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보급 촉진
오사카시의 도심부에서 민간사업자가 각종 실증실험을 집중전개할 수 있도록 산학관 제휴

장 나 래

(해외입법조사위원, 미래전파공학연구소)